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담임목사 이 동 관

주일에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 찬 양 다함께
* 입 레 송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교 독 문 42(시편98)
찬 송 28장
기 도 정인수 장로 | 1·2·3부
최지원 서기 | 청년부
성경봉독 롬 4:17-22(신245) | 1·2·3부
출 40:34-38(구146) | 청년부
찬 양 예수님이 좋은 걸 - 할렐루야 찬양대 | 1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 뽀엘찬양대 | 2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 시온찬양대 | 3부
헌 금 393장(헌금송) | 1·2·3부
봉헌기도 인도자
설 교 아브라함의 믿음-이동관 목사 | 1·2·3부
하나님이 옆집으로 이사하시다-김종명 목사 | 청년부
기 도 설교자
* 찬 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1·2·3부
내 마음의 한 자리 | 청년부
* 축 도 설교자
교회소식 인도자
* 폐 회 송 다함께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주기도

- * 최기동 장로 | 1·2·3부
* 김은진 회계 | 청년부

Daedong
Presbyterian
Church

since 1948.1.9

주일찬양예배

14:30 | 인도 한성령 목사

목 도 다함께
찬 송 250장
기 도 안상현 장립집사
성경봉독 시 17:1-5(구812)
찬 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 시온찬양대
설 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다
/ 한성령 목사
특별찬송 유치부
교회소식 이동관 목사
찬 송 545장
축 도 이동관 목사

다음주 기도 | 오현택 장립집사

다음주 특송 | 유년부

수요예배

19:00 | 인도 이규철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317장
기 도 김미조 권사
성경봉독 고후 8:1-15(신294)
찬 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마리아찬양대
설 교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 이규철 목사
찬 송 212장
주 기도 다같이

다음주 기도 | 김정희B 권사

성경통독 안내

18일(주)	19일(월)	20일(화)	21일(수)
6권1장	고전1-4	고전5-8	고전9-12
22일(목)	23일(금)	24일(토)	
고전13-16	고후1-3	고후4-6	



말씀영상



오디오성경

화요종보기도회

20:00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 인도 이동관 목사

주일학교 교사기도회

새벽기도회

05:00 | 인도

월-토: 교역자
주 일: 담임목사

10/19 (월)	10/20 (화)	10/21 (수)	10/22 (목)	10/23 (금)	10/24 (토)	10/25 (주일)
약2	약3	약3	약4	약4	약5	약5

다음주 기도 | 조우석 장립집사

2026년 10월의 행사계획

- 하반기 교사세미나(17일/토)
- 가을전도잔치(25일/주일)
- 주일학교 전도행사(10월 중)



봉사위원

10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안 내 위 원	최인철 김종철 허재경 송귀순	박윤환 이동곤 서영미 정영아
헌 금 위 원	강부식 이상만 서상일 오순택 임광수 천민주 홍성식 손명희 오은숙 이민영 박하기쁨	정원수 황인성 김종휘 유대중 윤정웅 심지현 이상희 김혜경B 한은정 박난희

남아공 정몽를 선교사

계절이 깊어 가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평안을 깊이 누리시는 한가위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조이풀교회 축구팀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팀'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첫 상대는 데일리브레드교회 팀이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친선 경기를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전술이 났냐, 바르셀로나 전술이 났냐 하는 수준 높은 토론은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0:9의 참패였습니다. 축구 팀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점수 차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무경을 열어보니 실력 차이가 아득했습니다. 이동원인 데일리브레드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자주 손발이 맞춘 덕에 재빨리 축구를 잘합니다(몇 년 전에는 한 아이가 16세의 나이에 남아공 프로팀으로 스카우트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이풀 팀은 급조된 팀입니다. 유니폼도 데일리브레드에서 남는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조이풀 아이들의 덩치가 더 크다 보니 맞는 사이즈가 없어 몸에 옷을 겨우 끼워 넣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축구는 7년제대로 된 운동화를 신은 아이도 드물었고, 맨발로 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축구공이라고 하면 빠진 공 하나가 전부였던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습니다. 경기 전 20분 동안 춤을 추고 시작하더니, 경기가 끝난 후에도 개인기를 선보이며 춤을 쳤습니다. 그 흥난극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합 일주일 전부터 조이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팀을 응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승패 못지않게 '목사님이 누구 편인가'에 있었습니다. 데일리브레드 아이들도 시합 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응원해 주실 거죠? 조이풀 응원할 건가요?"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다 돌보고 있고, 당연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확신하고 싶었던 것은 "너를 더 지지해 주고, 너를 더 주목해서 봐 달라"는 따뜻한 격려였을 것입니다. 다만 지지를 요청하는 마음의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축구를 잘하는 데일리브레드 아이들은 자신의 멋진 기량을 보여줄 '서포터'로서 자기를 바리새 주길 원했습니다. 반면, 시골 마을에서 별다른 교류 없이 자란 조이풀 아이들은 분위기에 잘 위축되는 편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아 데일리브레드 교회에 가도 고개도 못 들고, 바닥을 보며 겨우 자기소개하는 열린 시합이다 보니, 상대편의 열렬한 응원 형상에 위축되어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부모 손을 더 바짝 짚는 아이들처럼, 아이들에게는 첫 소련의 안도감을 줄 '홈베이스'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교회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꿀을 넣고 제 앞에서 가물거려서 세레머니를 하는 아이들도 귀엽고, 잔뜩 주눅이 들어 헛발질하며 맛쩍게 웃는 아이들도 그저 사랑

스럽기만 합니다.

조이풀 교회 아이들은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들 사이에서 제법 진지한 자기반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덩치는 큰데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졌다."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이제는 매일 방과 후에 모여 달리기와 공을 차며 기본기를 연습하고, 서로 패스하며 전술도 익혀가고 있습니다. 0:9라는 패배가 아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된 셈입니다. 딱히 놀거리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이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함께 뛰 놀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규칙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규칙도 정했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교회 예배에 빠지면 무조건 선수에서 제외한다!" 아이들의 귀여운 감성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서 자는 작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축구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 안에 조금씩 자라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구공 하나도 제대로 없었고, 유니폼도 빌려 입었으며, 첫 경기에서는 0:9로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함께 연습할 친구가 있고, 다시 도전할 목표가 있으며, 무엇보다 함께 웃고 성장할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도 선교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한 아이가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고 자신감을 얻으며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 마음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소중한 일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작은 공간에 담긴 큰 은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책도, 책도, 공간도 하나씩 채워가는 소박한 모습이지만, 이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들을 하나둘 기부받아 정리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금씩 공간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떠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작은 도서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시고, 그 씨앗이 싹과 꽃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젠가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때 그 작은 도서관에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 나에게 꿈을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부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 1. 정책당회: 오후 찬양예배 후/당회실
- 2. 구역장 · 관찰 모임- 화요일 오전 10:00/본당
- 3. 화요바울 전도대(국수전도대)-화요일 오전 10:40/본당
- 4. 양육 훈련 안내

양육 훈련명	일시 및 장소	강사
어? 성경이 읽어지네!	수요일 저녁 8:00/예루살렘홀	신윤자 교육전도사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읽다	토요일 오전 10:30/교육관 601호	조태화 목사

알림

- 1. 금요 하늘문 기도회: 이번 주는 주일학교 교사기도회로 모입니다.
- 2. 학습 · 입교 · 세례 안내
 - 문답식: 10월 24일(토)/ 오후 4:00 새가족양육실
- 3. 2026 '가을 전도잔치' 주일 안내(예고): 다음 주일 1-3부 예배/본당
 - 다음 주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주차를 하실 분들은 'VIP'를 위해 교회 주변 주차장범여초, 찬양대, 카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카페는 'VIP'를 위해 성도님들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에 모든 VIP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있습니다(꽃을 달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세요).
 - 10월 25일(주) 헌금안내- 다음 주일에는 헌금시간이 따로 없으므로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사툰 꽃 전도대: 10월 20일(화)과 10월 22일(목)에 꽃전도가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장소: 교회카페 앞).
 - ※ 말씀 영상 안내: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담은 4차 영상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VIP에게 전해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링크는 단체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이번 주 실천: VIP에게 말씀 영상과 초청장을 전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4. 성경책 표지 교체 신청(성경책 표지가 낡아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 신청기간: 오늘까지(주일1-3부 예배 후)
 - 신청방법: 성경책의 낡은 표지를 교체하길 원하시는 분은 본당 1층 로비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성경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성경책을 제출하실 때 본인부담금 1만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비용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 5. 구역성경 필사노트 제출(예고)
 - 구역성경 필사를 완료한 필사노트(3권을) 10월 25일(주일)까지 솔로몬실(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육군50사단 신교대 진중세례식(예고)
 - 일시: 11월 1일(주일) 오후 6:30
 - ※ 참석하실 분들은 본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군부대 출입 때문에 사전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관동정

- 1. 고등부: 26년 수능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명단(가나다순)- 총27명
 - 권구찬 김다은 김동하 김시량 김수현 김재이 김진서 노석래 박예진 박하은 배서연 서현우 손주원 안유준 윤상혁 윤은영 이보민 이연희 이준호 임다영 임성은 임이원 장수현 조윤진 조희준 최은서 허선유
- ♡ 문의: 한성령 목사(010-4465-4441)
- ※ 명단 누락 및 수정이 필요한 분은 고등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주시고, 수능시험(11월19일)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 1. 장례: (사랑12) 김덕상 은퇴권사 소천, 10월17일 장례.

다음 주 예고

- 1. 정기당회 2. 가을전도잔치 3. 교육위원회 4. 7여전도회 월례회

*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외에 외부성경공부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요약

존 테일러 스미스(J T Smith) 주교는 빅토리아 여왕의 명예 군종 목사이자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군인의 군종감이었습니다. 그는 유쾌하고 거룩하며 케스워 집회의 유명 강사였던 "모든 사람의 주교"였습니다. 스미스 주교는 모든 군목 후보생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를 나에게 보여 주기를 원한다. 나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한 병사라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살 시간은 3분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는지를 말해다오." 만약에 지원자가 빙빙 돌려 말하며 참된 교회와 예수 등등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좋은 주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3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말해 주세요" 스미스 주교가 군종감으로 있는 동안, 군목 후보자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결코 군종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19세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뽑으려 주위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여왕은 3명의 후보에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 장으로 요약해 오십시오. 요약을 가장 잘하는 분을 뽑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대전 중에 모든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하기를 지시했습니다. 보고서가 한 페이지가 넘으면 다시 작업하여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핵심을

추려 간단하고 명료하게 압축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큰일을 맡을 수 없다는 생각을 그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조에 실시하였던 과거 시험에는 압축하는 능력으로 인물을 판단하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입사 시험을 치를 때에 요약하는 능력을 꼭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복음은 만인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라고 간결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였습니다. 이 명쾌한 메시지를 듣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에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면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 잔치 기간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영아 강정은 강하비 김광영 김명순 김미선 김민정 김민준 김상열 이혜련 김상중 김성도 김성은 김성진 전미혜 김순혜
김연정 김은성 김은중 김정련 김명경 김종욱 김호민 노영순 노정규 최종묵 도영희 박문웅 박영혜 박종필 방미숙 손일수
신상영 신윤자 신지혜 심정훈 안현숙 김수화 오양숙 오창현 위선영 유대현 윤선희 이규철 이동관 이상급 이석호 이은진
이신일 이윤하 이장우 김치현 이진우 정규창 이향희 정경애 정기현 정원수 장지관 김진아 조신태 조현민 진영민 차성도
최보혜 최우영 최은유 최형자 하태은 박선희 무명4명

감 사 헌 금 | 법사 | 강대환 김명선 강도현 강정은 권보경 권영희 권오식 김경란 김규생 김숙희 김규정 김상미 김근희 김서영 김선호
김성진 김옥려 김은미 김은아 김문형 김은중 홍경숙 김중근 이민형 김철수 김현미 나대연 나예림 노영순 노영희
유대현 문예주 박문웅 김희숙 박성인 이영애 박승기 박승철 이정남 박영혜 박의찬 박지순 서상중 서주영 서지환 설경화
손동부 배성애 송귀자 신경녀 신동원 이은영 신윤자 신일원 신정민 신지혜 심지현 심해동 김정혜 안해웅 안혜숙 엄경복
오광택 오미란 이동관 이무하 최혜주 이병돈 이화숙 이순자 이소희 이실근 이영숙 이예진 이태순 이현지 김원환 이홍순
전향란 정하림 최인철 조신태 신상영 조은유 조유은 지승윤 조수우 진영민 차동훈 채현국 최조웅 김순향 최지옥 최형자
한은정 한현희 허윤학 한상만 강귀남 황미란 황선영 BBO동호회점 조이재가노인복지센터 무명4명

| 댄스대회 | 조민정 | 생일 | 김동우 | 손자출생 | 노경애 최진순 | 승진 | 김예진

| 심방 | 김기덕 김옥희 | 자녀생일 | 설경원 | 회복 | 최병일

일 천 번 제 김경란 도정희 박은순 오광택 황미란 윤애정 장미희 무명1명

선 교 헌 금 강상혁 강정은 김규장 김상미 김기덕 김미영 김미자 김미혜 김민석 김민정 김상열 김성진 전미혜 김수자 김순혜
김영옥 김영희 김옥려 김옥희 김윤규 김종진 김창환 김호순 노영순 노영희 박성자 박소연 박영옥 박영혜 박인숙 박정호
박태환 서일영 서화자 석근식 설동진 소상원 신윤자 심택필 오주석 유대중 윤귀옥 이규철 이동관 이신일 이옥희 이윤범
이윤하 위선영 이혜련 임병덕 정경애 정수옥 조신태 신상영 차민서 최광문 최조웅 김순향 한은정 한창희 허윤학
다문화예배부

국내 지원교회 현황



일반헌금 | 농협 355-0505-0505-53 / 예금주 대동교회

선교헌금 | 하나은행 192-890033-62004 / 예금주 대동교회

가상교회 이준권 목사
군선교회 김경숙 간사
공유교회 김성수 목사
길부교회 최침식 목사
깊은샘교회 최대훈 목사
관호교회 박창기 목사
꿈이든교회 하승수 목사
낙산교회 김성근 목사
냉수한그릇 선교회 김동준 목사
대구교통문화선교회 박영찬 목사
대구지방경찰청경목실 조석원 목사
대구학원복음화협의회 임호근 목사
드림교회 장지현 목사
말씀으로교회 이영주 목사
문경새순교회 조창우 목사
반석교회 윤정문 목사
보배로운교회 김태명 목사
봉곡교회 김갑석 목사
봉산교회 김경태 목사

봉촌교회 조규현 목사
뽕엘선교교회 조강성 목사
샘물샘교회 윤희달 목사
서넛도교회 박승덕 목사
성주인촌교회 이돈규 목사
승리하는교회 한병열 목사
송산교회 최판동 목사
새생명교회 박숙자 전도사
아름다운교회 서기성 목사
아름다운교회 홍상근 목사
여수교회 이현중 목사
열린교회 이경동 목사
예수사랑교회 김은수 목사
은목교회 김성무 목사
은혜샘교회 김진완 목사
이수교회 최창욱 목사
전흥교회 최준희 목사
주사랑교회 김점용 목사
주소망교회 오준석 목사
중남교회 이만형 목사

지소제일교회 박노열 목사
진동동행교회 장성 목사
진사교회(소망의집) 김한곤 목사
청송화정교회 최두희 목사
칠곡남부교회 이우석 목사
칠곡호국교회 김형국 목사
토기장이교회 이상길 목사
평안교회 김중섭 목사
푸른동산교회 김성환 목사
풀어주는교회 윤치성 목사
하늘선민교회 김진욱 목사
하늘소망교회 안운철 목사
함양안산교회 서보성 목사
한국침선교회 최종민 목사
형통한교회 양은실 전도사
형통한교회 강선도 목사
출사모션교회(새행로교회) 이예스더목사

*주일설교 내용을 공란에 메모하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 · 2 · 3부 아브라함의 믿음 / 롬 4:17-22(신245)	
그의 믿음	
75세	영광의 주 (창 12:1; 행 7:22)
99-100세	전능자 (창 17:1; 롬 4:18-21)
115세	부활의 주 (히 11:17-19)
그 이후	여호와 이레 (창 24:7, 1)
그의 하나님 (롬 4:17)	
결론	롬 4:22 (갈 3:5-7)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눅 17:6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사역

담임목사
이동관

부목사
이규철 김성진 김종영 조태화
한성령

협동목사
주영재

여전도사
이향희 방미숙

교육전도사
강정은 박영혜 신윤자 조효정
김은성

장로사역
원로장로
박익찬 오수웅 신경의 최조웅

은퇴장로
박경규 박익석 박문웅 김동해
김동우 김덕수 김광영 오주석
차성도 김대년 최대원 김동의
김호정 박성우 노판석 김윤규
강대환 김중욱 김원식

시무장로
신덕수 심재욱 김동일 김대희
조성재 임상근 정인수 최기동
박상호 박윤환 신일규 최인철
박대익

협동장로
김주영

전임장로
이장우

찬양사역

지휘
할렐루야 | 오현택 벤 엘 | 조우석
시 온 | 정요한 마리아 | 권보경
피아노
할렐루야 | 김미향B 벤 엘 | 오윤진
시 온 | 안 나 마리아 | 이주영
새벽기도회 | 이은영

오르간
할렐루야 | 김문주 벤 엘 | 강명아
시 온 | 조민영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대동교회!

선교부 파송 및 해외선교 현황

감비아	몽골	정현길	태국	K국
선성수	신종호	유정훈	문진세	김요한
나이지리아	미국	구로아나기	김교일	T국
이능성	최승암	전격군인교회(한국)	이목훈	임동진
남아공	미얀마	박호기	송진호	서상협
양현	강대경	카자흐스탄	오성길	
정몽률	베트남	박진대	파라과이	
네팔	이창명	캄보디아	손경수	
윤은호	영국	천준상	필리핀	집계
대만	윤하민	윤성욱	박재형	파송: 4
김대우	이집트	케냐	김영권	협력: 47
라오스	조은 조	이종도	박호동	
김종훈	양형권	타지키스탄	남창수	
러시아	인도네시아	엄은식	한용식	
한성훈	나그네	타지키스탄(국내)	박재영	
김인규	이석기	장일영	주경배	
모로코	노수정	장일영	A국	
박두례	일본	탄자니아	이명일	
저스틴김	민수식	김태현	하성	

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05:00
주일예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주일찬양예배	14:30
다문화예배	11:30
수요예배	19:00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주일학교

영아부	10:00
유치부	09:30
유년부	09:30
초등부	09:30
중등부	09:30
고등부	09:30
청년부	13:30
장년부	13:20
여호수아청년부	13:30

찾아오시는 길

